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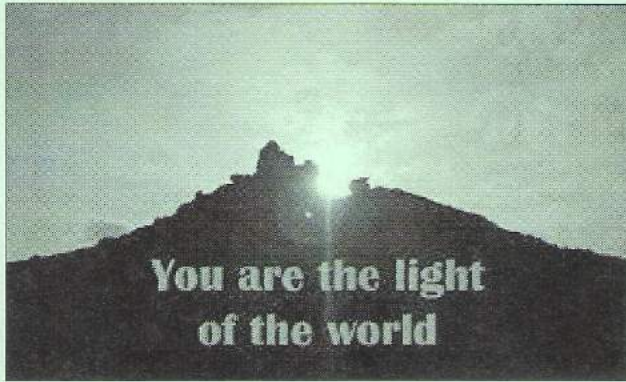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5주일
제37권 11호(가해) 2017년 2월 5일

[묵상]



<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인공으로 제조되어 기교로 맛을 내기는 하지만,
인체에는 해로운 인공조미료가 아니라
참된 맛을 내어주며,
부패를 막아주되 해롭지 않은 유익한 참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쓰여야 하며,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 누가 우리의 모습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해 주었던가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은 우리들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모신 이들 다운 삶을 살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언젠가,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서 분명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감격으로 자신들 역시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고 싶었노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할 수 있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할 빛이요,
또 하나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튼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엄회/성모회/자모회/대전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오전)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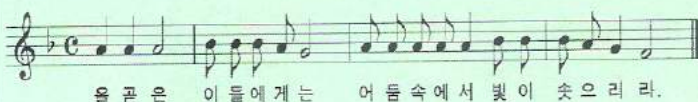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7,4358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7,4358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7,4358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 임은영 안젤라, 이용식 베드로, 서성웅 베드로, 김팔암 & 오정석 & 김순학
	(생)
주일 학생	(연)
	(생) 스티븐 오
주일 낮 미사	(연)오원순 안나, 고준희 제임스, Bob Polk, 송기분 수산나, 임은영 안젤라, 현시영 요셉, 김정례 수산나, 조상들, 안병무 & 안준환미카엘&유무서, 이종갑부르노&조상들, 박태현요셉, 이현호 요한, 박승주 카타리나의조상 & 데이몬드, 정동점 마리아, 한태동 요한 & 윤인숙 마리아나, 주재원 시메온
	(생)손석 스테파노, 토서3반가정, 황윤재 베드로 가정, 박정미 클라라, 차병용 클레멘스, 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엄유진 토마스 아퀴나스, 김우성 요한, 최경숙 수산나, 김관기 & 김명재가정, 에이든 바오로 & 송크리스티나 & 타미,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8,7-10

화답송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그 마음 굳세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빛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제 2독서 코린토1서(1Corinthians) 2,1-5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음 마태오(Matthew) 5,13-16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
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
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한국 교회의 역사

제3부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1945-1999년)

3. 한국 교회의 쇄신(1962-1984년)

3-3. 정의 구현 운동의 전개

이들은 교회의 사회 교리를 천명하면서 정의와 사랑의 개념
을 밝히고 이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교회가 전개하는
정의 구현 운동 또는 반독재 투쟁은 당시 사회 양심 세력의
적극적인 찬성과 지원을 받으면서, '민주 회복 국민 회의'와
같은 반독재 투쟁의 중심 기관에 윤형중(尹亨重, 1903-1979
년) 신부가 상임 대표를 맡기도 하였다.

교회는 사회 양심 세력과 연합하면서 정의 구현 운동을 전개
하고, 그 연합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독재
정치의 종식, 정보 정치의 철폐, 인권 유린에 대한 반대, 부정
부패의 추방, 기본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제단
에서는 구속자 석방을 주장하고, 군사 정권의 권위에 도전하
였다. 그들은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에서 '인민혁명당 사건'을
비롯한 각종 '시국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진상 규
명을 위해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1974년 인혁당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동참한 메리놀 외방 전교회 소속 시노트 신부가
추방당하였다. 그 뒤 교회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1976년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이른바 '3·1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유신
독재에 대한 가장 선명한 저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1979년엔
는 안동교구 농민회를 탄압 하는 '오원춘(吳元春) 사건'이 발
생하자 교회는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교회의 비판적 태도에
맞서 군사 정권은 교회를 탄압하였다. 군사 정권은 집권 시기
에 여러 성직자를 구속 수감하였으며, 교회 신문에 발표하는
사목 교서도 검열하였다. 심지어는 본당 간행물인 「주보」를
정기 간행물 등록법 위반으로 몰아서 폐간하려고까지 하였다.

그런데, 교회의 정의 구현 운동에 교회 구성원 모두가 찬
성한 것은 아니다. 몇몇 성직자들은 이 운동에 공개적으로 반
대하였다. 몇몇 교구장들은 교도권을 동원하여 정의 구현 운
동에 제동을 걸기도 하였으며, 1977년에는 노장 성직자 일부
가 '천주교 구국 위원회'라는 기치 아래 '사회 안정'을 이유로
정의 구현 운동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한국 주재 외국인 선교
사들의 이른바 '반한(反韓)' 활동에 제동을 걸고자 하였다. 극
소수의 신자들도 '한국 천주교 정의 신자단'을 급조, 교회의
정의 구현 운동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84	184	184
봉헌	254	254	269
성체	286	286	304
파견	178	178	200

하느님의 부인

어느 겨울 저녁 맨발의 어린 소년 하나가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불이 환하게 켜진 신발가게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부인이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야, 뭘 그리 뚫어져라 쳐다보니?” 소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느님께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부인은 소년의 손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양말과 신발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세숫대야와 수건을 빌려서 가게 뒤편으로 소년을 데리고 가서 발을 씻긴 뒤 수건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원이 가지고 온 양말과 신발을 소년의 발에 신겨주었습니다. 소년은 부인의 손을 꼭 잡고 가게를 나오다가 부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가 하느님 부인이예요?”

흔히 사람들은 하느님을 긴 머리에 흰 수염을 늘어트린 할아버지라고 상상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의 소년도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웬 중년 여인이 나타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니까 ‘하느님의 부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부인’,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천사’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은 하느님께서 부족하고 흠이 많은 자신을 당신 자녀로 삼아 사랑으로 보살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을 등지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왜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랑, ‘마보 같은’ 사랑을 베푸실까요?

우리가 사랑으로 변화되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면 하느님께서 찬양받으십니다. 자식이 훌륭하면 부모가 칭찬을 받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하느님은 착한 행실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약속하십니다.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주시리라.”(제1독서)

하느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 사랑을 본받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힘’(제2독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헌신적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신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길게 드리운 어둠을 흩어버리는 환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아쉬운 것 많더라도

오르페우스는 지옥에서 구한 아내를
뒤돌아봐 잃게 되고
룻의 아내도 뒤돌아봐 소금기둥이 되죠.
충청도의 어느 착한 머느리 역시
뒤돌아봐 바위가 되지만
치히로는 돌아 보지 않고
부모님과 무사히 터널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애써 선택한 길 돌아보아야 미련만 깊어질 뿐.
그래도 기어코 봐야겠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만큼만.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혜경 레나타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한정숙 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토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만식 미카엘	김금자 테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4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Lock-in

- 날짜: 2월 10일 (금) ~ 2월 11일 (토)
- 준비물 : 세면도구, 옷, 두꺼운 외투, 침낭/베게
- 등록: Permission form 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2017년도 Steubenville San Diego 신앙대회

- 일시: 7월 28일 ~ 7월30일(2박3일)
- 장소: University of San Diego
- 대상: 현재 8학년 ~ 12학년까지
- 등록기간: 2월 5일 ~ 3월 5일
- 등록비 : \$ 200 (할인된 등록비 1인당 기준)
- 등록 서류는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Pay to :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 추가 문의: 황선준 플로렌시오, 310-658-6654

◆ 2017년 11월 SAT II 한국어 시험 대비반 개강

- 일시 : 2월 5일~6월 18일
- 자격 : 현재 8 학년 이상 등록 가능
- 등록비 : \$ 200 (교재 및 기타 자료 포함)
- 장소 : 한국학교 교무실

◆2017년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I, II)

- 시험일시 : 2017년 4월 15일
- 시험장소 : LA 한국교육원
- 접수마감 : 2월 14일까지
- 응시수수료 : TOPIK I - \$ 25, TOPIK I - \$ 30
(단 2월 12일까지 백삼위 한국학교로 접수하는 학생인 경우는 무료)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2016-17년도 1학기말 시험 성취도 평가 우수자 시상식

- 시상식 : 2월 5일 학생 미사 중
- 개나리반 - 윤지아, 김리원, 류제영
 - 무궁화반 - 서윤아, 정소운
 - 장미1반 - 신성현, 박대이
 - 장미2반 - 최진희
 - 코스모스반 - 정채윤, 최지인
 - 민들레반 - 장은서
 - 수선화반 - 한길미아
 - 진달래반 - 김다영, 이유솔

◆청소년 분과 봉사자 모집 공고

백삼위 한인 성당의 주일학교, 한국학교의 발전은 교우 분들의 작은 기도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즐거운 성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이메일 : 103skccks@gmail.com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 & 한국학교에서 성실히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이메일 : 103skccks@gmail.com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2월 5일: 김밥, 컵라면 (소공동체, 토서담당)
*주일학교 : 쇠고기미역국 (3학년)
- 2월 12일: 육개장(토서,1,3반)
*주일학교 : 튜나 샐러드(8,11학년)

지나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장인모 김관기 김광자 김영덕 김원규 김일선 김정웅 남성철 민순섬 박종열 박준범 박현희 반정이 서영주 서은희 송기철 오일순 윤현정 이병우 임 순 임한나 정연영 정정미 주재옥 차병용 최상만 최수복 최열자 최태훈 한영분	장인모 김관기 김광자 김영덕 남성철 박현희 서영주 이병우 임 순 차병용 최상만 최열자 최태훈
합계:\$ 3,270	합계 : \$1,030
주일미사헌금 :\$2,863	주일학교피정헌금 : \$37

남가주 소식

◆한국외방선교회 멕시코 캄페체 선교지 방문단 모집

- 방문일정 2/23(목)-2/28(화)
- 방문지 : 멕시코 캄페체
- 활동 : 미사 봉헌과 문화탐방
- 연락처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2월 말씀과 함께하는 피정

말씀과 함께하는 피정은 하루동안 성경을 집중하여 읽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있는 신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언제 : 2017년 2월 11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어디서 : 남가주 가톨릭성서임 센터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주제성경 : 예제키엘(2), 다니엘 예언서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개인컵, 회비(\$10)

◆"면형무아 성경공부" 요한복음

- 개강 : 수요일 2월8일(수)오후 7:30~9:00
금요일 2월10일(금)오후 7:30~9:00

◆"면형무아 독서모임"

- 개강 : 2월9일(목)오전 9:30~11:00(둘째,넷째 목요일)
- 장소 : 영성센터 (한국 순교복자수녀회 미주지부원내)
16276 California Ave., Bellflower, CA 90706
- 활동 : 미사 봉헌과 문화탐방
- 문의 : 김 도미니카수녀 (562)714-7769,
(562)461-8100

◆제 37기 성 아그네스 성당 커피교육

- 강의 : 2017년 2월26일(주일) 낮 1시~5시
27일(월)저녁 6시~10시 중 하루
- 교육방법 : 첫날 3시간강의, 1시간실습
첫 교육후 10회실습
- 교육비 : \$200(당일 지불)
- 장소 : 성아그네스성당 회의실
1451 Dana St. LA, CA 90007
- 문의 : 성당사무실 (323) 731-4433

E-MAIL : ignhanddrip@gmail.com

소공동체 2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김광자 엘리자벳 02/15(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한장환 안토니오 02/11(토) 오후6시 미쿠리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02/17(금)오후7시30분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강인모 데오도시오 02/11(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이 크리스 02/11(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숙 벨라멧다 02/19(일)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02/19(일)오후3시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02/13(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전하현 마리아 02/11(토)오후6시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서용숙 에스텔 02/13(월)오후6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주대종 다니엘 02/11(토) 오후7시 성당2층R3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이용무 스테파노 02/10(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관기 라파엘 02/11(토)오후6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김명 베드로 02/17(금) 오후7시
	4	이귀란 아메스 617-3568	한애경 올리아나 02/14(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제 단체모임	1시
--------	----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어느 날, 저의 한 친구 수녀가 말했습니다. “본당에 십자가의 길을 새 작품으로 바꾸면 좋겠는데, 어떤 은인이 없을까?” 이 성당은 오래돼서 비가 오면 물이 새어 보수할 곳은 많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가난한 성당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성당에 필요한 것을 남몰래 도와주는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면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돈이 없는데, 건물이 팔리기나 하면 모를까....”라고 하시면서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그 성당의 신부님과 친구 수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성물제작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성당에 어울릴 만한 작품을 골랐는데, 비용이 예상보다 두 배나 되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수녀가 다시 그분께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보니, 선택한 작품 그대로 구입하라는 답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성당에 ‘십자가의 길’을 새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모 화재 보험 회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오랫동안 화재보험 넣은 것이 만료가 되고 화재도 안 났으니 보험금을 찾아가라는 소식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액수는 기증한 돈의 두 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돈이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바로 갚아 주셨다며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성당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보면, 수표를 이쪽저쪽 주머니에 넣고 그 성당에 가서 성당 건축이나 보수에 필요한 만큼 서슴없이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태 6,3)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래 전 크리스마스 때, 저는 우리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선생님과 함께 미 해군 부대 사령관의 초대를 받아 작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15~16명이나 되는 아기들과 엄마 아빠들이 웃음을 머금고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모두 우리 병원 산실에서 아기를 낳았고, 우리의 간호를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이든 낮이든, 산기가 오면 병원에 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우리 병원에 오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초대는 고통과 기쁨의 순간에 함께 했던 일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미 해군 부대 사령관은 감사장과 함께 가족들의 사진을 담은 앨범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들의 감

사와 행복한 분위기 안에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종종 텔레비전에서 “당신은 사람을 살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전화하십시오!” 하는 다정한 속삭임을 듣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도 보입니다. 저는 그들의 반짝이는 눈망울들을 모두 주님께 바칩니다. 저 아이들을 살려 달라고....

◆박 마리미셀 수녀/샬트르 성바로로 수녀회(대구 관구-몽골선교)

[소곤소곤]

하루 중에 성체를 몇 번 영할 수 있나요?

☞ 두 번입니다. 첫 번째 영성체는 영성체 할 기회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병자성사 때 혹은 미사 없이 말씀의 전례 중에 가능하지만 합당한 영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영성체는 반드시 미사 중에만 허용됩니다. 혼배 미사, 장례 미사를 구별하지 않지만 온전히 참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교회는 한 번 성체를 영한 신자 일지라도 같은 날 다른 미사에 참여할 경우 영성체 할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미사 참례 때마다 성체를 모실 수는 없습니다. 미사참례의 수와 무관하게 하루 중에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죽을 위험에 있는 자, 임종하는 자의 경우라면 하루에 몇 번이든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두 번 영성체 했더라도 죽을 위험에 처한 경우라면 당연히 병자성사뿐 아니라 영성체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사를 베푸는 목적은 그리스도와와의 일치에 있으며, 그 일치는 영원한 구원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참고로 교회법 제917조는 “성체를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죽음의 위험에 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에 두 번 이상 성체를 영할 수 없지만 성체를 모시는 횟수보다 나에게 오신 주님과와의 일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톨릭 부산 주보

[교리상식]

미사에서 파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미사는 성당 문을 나섬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안에서 기쁨, 고통, 삶의 노고를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봉헌으로 이어지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사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고 영혼에 힘을 얻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1 「미사 전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무금과 헌금의 차이는?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 마음에 갈등을 하는 신자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바로 교무금 때문입니다. 교무금을 포함한 헌금이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기 봉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라에 내는 세금처럼 의무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교무금(敎務金)이란 교회의 유지와 운영 및 여러 활동을 위해 신자 가구에서 매월 일정액을 교회에 봉헌하는 헌금으로, 그 유래는 구약시대 십일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시키시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내리셨습니다. “땅의 십 분의 일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레위 27,30) 신약성서에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십일조를 철저히 지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 23,23 참조)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재산을 내놓아 공동 소유로 하면서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는 이상적인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사도 4,32-35 참조)성서에서 말하는 십일조는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결국 하느님께 속한 것이라는 일종의 신앙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신자들은 헌금과 교무금의 형태로 교회에 일정액을 납부하면서 십일조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일”(마르12,17)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와 곡물 같은 것을 봉헌하여 함께 나누어 먹고 나머지는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11세기부터는 주일미사 때 빵과 포도주 대신에 헌금만을 봉헌하였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헌금은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인 신앙심으로 미사 중에 자기희생의 상징 제물로 봉헌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무엇을 바치고자 할 때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바쳐야 하며, 마지못해 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Quiz 위의 글에서 단어를 찾아 빈칸을 채우세요

신									포	
		교		금		십		그	스	인
				주		미			주	
서					조					

1월29일 자 정답: 두 사람이 제사를 없애고 신주를 불태워 버려서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 교정 사목 위원장

「성경 속 동식물」 06 유독(有毒)식물 가라지

가라지는 그 씨가 이집트의 4000년 된 무덤에서도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오래된 식물이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대목이 있다.(마태 13,24-30.36-43) 종말 때 이뤄질 심판을 가라지의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다.

그림 이아름 카타리나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보)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바-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플베다길

뚜레쥬르

새해 고객 감사 이벤트  
1월 한달동안

\*조각 케익 2개 사시면 하나공짜  
\*케익 하나 사시면 \$5 off(쿠폰지참시)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Lic#0I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